

◆ 교회목표 ◆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우리 교회당에서, 5월 10-13일

수요I부 예배 오전 10시, 수요II부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오는 5월 10일(월)부터 13일까지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금번 기도회는 전국에서 약 3천여명의 목사와 장로가 참가할 예정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교회 안까지 침투하고 있는 부패상을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상 정립을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

채벽기도회와 오전·오후 강의, 그리고 저녁 집회로 계속되는 3박 4일간의 모든 진행과 담당은 총회 임원들과 실무진이 하게 된다. 또한 이번 행사의 강사는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비롯하여 김희보, 채운수, 신예철, 옥한흠, 오용구, 최병남, 이삼성, 최기재, 정필도 목사 등이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단의 큰 행사 중의 하나이다.

대회진행 관계로 이번주 수요일 I부 예배는 오전 10시에, 수요II부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 함께 드려진다.

■ 능력받고 충성하자 ■

충현기도원 설립 제15주년 기념부흥회

5월 31일 밤 — 6월 3일 밤까지

충현기도원은 기도원 설립 제15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회를 오는 5월 31일 밤부터 6월 3일 밤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기간중 매일 오전 4시 30분에 새벽기도회, 오전 11시에 낮 성경공부, 오후 8시에 밤 부흥회로 모이게 되는데 숙식을 하며 참여할 사람들은 미리미리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부흥회는 충현기도원 설립 제15주년을 맞는 특별부흥회로 모여 준비 및 진행 등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신현균 목

사(성민교회 당회장, 민족복음화 총재), 충현기도원 지도인 유창무 목사이다.

부흥회 기간 중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과 오후 6시 30분 — 7시에 기도원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기도원에서는 그동안 잘 모이지 않았던 금요일 철야로 모이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9일부터 성황리에 모이고 있다. 시간은 교회에서 금요집회 후에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기때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청지기 훈련 모두 마쳐

5월 16일, 수료자 헌신예배로

지난 4월 5,6일부터 시작한 청지기훈련이 지난 5월 3,4일까지 모두 마쳐졌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교사, 찬양대원, 권찰, 직인 등 모든 교회일꾼들이 각 연합교구별로 모여 연인원 3000여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금번에는 ‘전도’에 초점을 두어 전도의 내용, 방법, 기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전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훈련본부는 오는 5월 16일 저녁 찬양예배를 청지기훈련 수료생 전원이 참석하여 헌신예배로 드려기로 했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5월 12일 광림기도원 교역자 세미나 설교
· 5월 12일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저녁집회 축도
· 5월 14일 국가 초찬 기도회 참석

2. 신성종 당회장 목사

· 5월 10일 목회자 세미나 특강 및 총강예배 설교
· 5월 11일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오전 강의 특강
· 5월 11일 교회성장 영성세미나 특강(산곡 기도원)

장로 동정

◆ 김차생 장로(행정위원회 위원장)는 27년의 역사를 가진 초교과 기독교 월간잡지인 <크리스찬 라이프>의 사장으로, 박치민 장로(봉사위원회 위원장)는 상무로, 손경수 장로(청년2부 부장)는 편집국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처럼 경영과 편집진을 일신하고 제2의 창간을 하는 정신으로 기획, 편집,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 진정으로 올바른 교계 소식과 정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확장을 위한 매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 이병학 장로(찬양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4월 26일 선교찬양대의 미주 순회 연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위해 뉴욕, 토론토,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을 답사하고 지난 7일(금) 귀국했다.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제22회 그리기·글짓기 대회

교회는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제22회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오는 5월 29일(토) 오후 2시 어린이대공원에서 실시되는데 참가대상은 그리기대회는 유치부, 초등1-6부, 중등, 고등부(크레파스, 수채화), 글짓기 대회는 초등 1-6부, 중등, 고등부(산문)이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

오늘은 전국 교회가 아버지 주일로 지낸다. 이 날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 우리들은 아버지 주일인 오늘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52주를 아버지 주일이란 마음으로 ‘우리들을 낳아 주신 아버지에게 청중하고 우리들의 늙은 어머니를 경례’여기저기 말아야 할 것이다.

청년2부와 소망부는 아버지 주일을 맞아 소망부 회원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감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어제 오후에 가졌다.



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영아부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목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복상으로 귀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 어린이 주일은 이마 이런 것들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보내야 하는 주일이라(사전/이승철 집사)

본

본문의 내용은 유대전통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와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유대인의 전통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한다 하는 소문이 자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2절). 유전이란 다른 말로 하면 전통(Tradition)입니다. 또 장로들이란 주로 랍비들로서 지도급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장로들의 유전은 미쉬나(Mishnah)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는 구약성경, 미쉬나, 탈무드를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쉬나가 제일 실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 두 종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돌비에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과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전해진 말씀이 구전되어진 것이 미쉬나, 즉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미쉬나의 내용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39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손을 씻는 결례식에 관한 유전이 나옵니다.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위생적인 측면에서 손을 씻지만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써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은 이런 손 씻는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된 것을 구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범죄와 관계된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위생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설을 했다가 설정을 했을 경우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의 의식에 사용되어 지는 것 예를 들면 피같은 것은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가 바로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약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하다, 부정하다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신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도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결한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에 피를 뿌릴 때 손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피를 묻혀서 뿌리지 않고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제단에 뿌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하소서 하는 말은 바로 피와 연결된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뿌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입니다.

또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중요한 것이 고르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막 7:11)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의 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법이 부모를 봉양하는 법입니다. 부모에게 거역을 한다든지 행방을 한다든지 마음아프게 한다든지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가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은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봉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고르반법

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부모님 우리 모든 재산은 모두 다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받쳤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양을 안해도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친다

충현강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

(마 15:1-11)



신 성 종

<목사·당회장>

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일부는 바친 척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부는 바치지만 나머지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책망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책망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폐한다는 말은 “권리를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 하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배우처럼 사나리오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에 따라서 감동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책망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4중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정도가야합니다. 생 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삽니다. 기독교인들도 전부터 유교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은 무속적이지요, 무당적이지요, 기복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갑니다. 소속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4중 인격입니다.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이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보면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여기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나를 헛되이 경

배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말은 마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건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뭘이죠? 음식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죠. 여기 더럽게한다는 말의 뜻은 코이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저속하게 한다, 품위를 떨어뜨린다” 그말입니다. 여러분 서민적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니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논했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 정한 음식, 부정된 음식 그걸 가지고 따진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과연 나는 어떤가? 외식하는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씀보다는 종교법을 앞세웠습니다. 교회법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전통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전통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좋은 것일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충현교회의 주일성수하는 좋은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 가운데는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보다는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마음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깨어진 마음(Broken spirit)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전통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말씀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성령충만한 성도, 진실한 성도, 열매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철학



우리는 가끔 그 사람 그릇이 작아, 아니야 커 하고 말한다. 여기서 그릇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우선 커야 한다. 크되 깨 어지지 않아야 하고, 더럽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크다는 말은 무엇인가?마음이 크다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을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포용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바다를 보라. 얼마나 큰가? 난류와 한류를 다 포용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감의 물을 다 포용한다. 그래서 큰 고기 작은 고기는 물론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고기들이 산다. 그러므로 바다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자. 그러면 그 밑에는 많은 고기가 모이게 될 것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제4회 충헌올림픽 앞으로 2주 남아

5월 28일, 정신여고 교정에서, 활발한 각 연합교구별 모임 및 출전계획

각 부서별 임역원 확정코 모든 준비 순조롭게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제4회 충헌올림픽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매주일 모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세부계획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이미 각 팀을 결정하고 각 팀에 따른 자리배치, 색깔들을 결정함에 따라 각 팀들은 교구연합 모임을 갖고 총감독, 감독, 응원단장 등을 선발했다.

입장식과 행사에는 원로장로들이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고 햇불 점화, 일신여상 밴드부의 입장, 공연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의 매스게임, 에바다, 사랑부의 즐거운 게임, 각 팀별 가창행렬, 각 팀별 응원 경연대회 등의 큰 볼거리를 제공하며 올림픽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을 것이다.

이번 올림픽은 치밀한 기획과 철저한 준비로 온 교우가 다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고 협동, 간결, 일체감 조성 등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종목들로 짜여졌다.

이번 올림픽은 40주년을 맞는 충헌의 성숙한 모습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자세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조직

- 명예대회장 : 김창인 원로목사 · 대회장 : 신성종 목사
- 조직위원장 : 우기전 장로 · 지 도 : 김성운 목사
- 조직위원 : 박치민 장로 최성현 장로 차신득 장로 손경수 장로 윤성철 장로 김여순 장로
- 실행부서

· 기획본부장 : 손경수 장로 차장 : 윤성철 장로

부 서	부 장	차 장	임 원 단
기획부	전승훈	전은배	구현숙
총무부	오진국	윤상언	
재정부	김영개	심정래	
섭외부	김춘권	안성영	
홍보부	조선근	이형수	이승철 임영호 김종대 정재홍 이동우 박형주 권기정 김나래 이주은 이은하 이종희 차미선

· 경기본부장 : 최성현 장로 차장 : 차신득

부 서	부 장	차 장	임 원 단
진행부	차신득	황의만	전승훈
심판부	박승준	김광호	이종섭 이인영 윤혜운 정상수 정영덕 문경안 장석두 한인철 이신동 신평철 황인주 양기수 이지환 강춘희 신춘희 함용식 서대식 송인섭 허영철 이승득 류재선 윤석현 이상해
전령부	전홍렬	신재성	박병선 최계열 홍택성 설명동 윤장원 신용환 이병석 임낙준
기록부	임무천	엄복섭	조기용 박원영 최근희 양수석 박계형 정유진 이현경 김혜영 김기원 김지원
시상부	최윤덕	엄숙현	

· 지원본부장 : 박치민 장로 차장 : 김여순 장로

부 서	부 장	차 장	임 원 단
동원부	박영식	박인건	각 교구 교역자 및 교구장
시설관리부	김재명	김 선	유정순 정숙이 김홍국 이주훈 하상구 차상진 조용목 여진수 강철형 고승근 고종복 김기철 김승곤 김시주 김인원 김창호 박동형 박성명 이만기 이석영 이철호 이영일 전용해 최장남 홍시요 황현철 조종선 신영희 최경애 강순자 정미순 김정자 라종예 최정애 김은숙 서순적
의료부	손 철	김양자	오현구 박종학 김대환 필재호 이동건 임명섭 문조영 홍의표 이종문 함승환 장영수 고지현 강복일 백영자 최정욱 김전애 김정희
차량부	이하영	허명호	김규종 이교영 추병찬 변해수 차기풍 김종성 이진우 김은석 김종규 김동안 허판영 한종구 김영연 변해수 공석생 장영창 손기현 윤병조 배호남 이병진 김영국 김종민 이상실 강신호 최진성 강희창 홍금호 김동삼 아인수 윤신한 오병두 박창식 김선구 김일교 김낙홍 한종현 최창준 이창권 이승구 박영섭 정동우 김봉준 정영길 이만석 윤석규 주명수 이구연 이용열 박원화 권용동 정무열 전만순

2. 연합교구(각팀) 임원진

팀명	교구	단 장	부단장	파견팀	총감독	경리감독	응원장	응원부장	선수대기요원
민	2					박미련 최차용			
	5					황영일 이병옥			
	6	강순용 18	김광남 강협		진홍용	이갑재 강봉수	박태진	전대연	금호순
	20					박홍규 강철형		김호순	박현순
소	23					손 철 이강대			
	1					김기철 박성명			
	4					이병용 김일주			
	15	이종석 박관영				김문석 구재완	이상해	박종규	
망	16	김의철	최무길 정하우	김미선	이정우	박석두 박원화			
	19		최대원			유재근 이승계			
	22					이부성 김승기			
						문광석 오인근			
사	7					정영덕 박찬섭			
	8					김남조 송진국			
	13	정광호	마성락 박영식	정혜옥	안병호	김경환 김윤환	이홍우	조주자	이장하
	14		이 훈 김천재			이철호 정원근		김춘지	장경수
랑	21					이명종 장주석		김정필	김홍기
						길재호 박근엽			전은실
									신소자
									김영록
충	3					안동현 박덕양			박종현
	9					김환기 김용석			홍성욱
	10	김은호	노광현 조인제	신남희	양종섭	김영은 정재복		김영은	
	11		송기홍 하대선					안석현	
성	12		이병학 강은원					이승덕	
	17		김경철 문홍구						

3. 경기안내

구 분	시 간	소 요	행 사 내 용	연 출	비 고
여	08:30-09:00	30분	· 팀별 집합 및 좌석 배치 · 인원점검/응원도구 지급 · 입장식 준비/정렬	· 팀 색깔 부착 · 팀별, 개인별 지급 · 각 팀 선수단	
	09:00-09:20	20분	· 개회 예배	· 정시 시작 · 5분 메세지	-기획부
올	09:20-09:50	30분	· 입장식 안내 · 마칭밴드 입장/공연 · 올림픽... 입장 · 각 팀 선수입장 · 개회선언 · 선수대표 선서 · 선수단 퇴장	· 간단명료하게 진행 · 깃발, 성화, 피켓... · 특수효과, 광파레 · 전교인 일체감 조성	팀당 24명
퍼	09:50-10:00	10분	· 응원전(1)	· 팀 조직화	-파도타기
	10:00-10:20	20분	· 파도타기	· 일체감 조성	선수출전
는	10:20-10:40	20분	· 아름다운 지구 만들기	· 매머드한 진행	-전체인원
	10:40-11:00	20분	· 아름다운 지구 나르기	· 단결력 표현	
올	11:00-11:20	20분	· 무지개 용사들	· 협동심 표현	-경보경기
	11:20-11:40	20분	· 천천히 줄을 쏘!	· 거꾸기를 통한 열린 경연	-소망부, 유치부
올	11:40-12:00	20분	· 장애물 릴레이	· 모두가 하나되어	-교역자, 장로
	12:00-13:00	60분	· 점심식사	· 12:00-12:30까지	
림	12:30-13:00	30분	· 메거리축구, 족구예선	· 체력단련과 스트레스 해소	-가장행렬 준비
	13:00-13:30	30분	· 가장행렬	· 모두가 '우리' 되어	
피	13:30-13:50	20분	· 아름다운 지구 떠드리기	· 1명도 소외감 없이	-사랑부, 에바다부
	13:50-14:10	20분	· 족구결승, 응원전(2)	· 지혜와 힘의 대결	
충	14:10-14:40	30분	· 무지개 따오기	· 우리팀 꿈나무	-변외경기
	14:40-14:50	10분	· 내자랑 우리자랑	· 청소, 게임	
헌	14:50-15:10	20분	· 자연보호		
	15:10-15:30	20분	· 400M 계주		
밋	15:30-15:50	20분	· 신약과 구약 사랑의 띠로	· 망설임과 성취감	-변외경기
	15:50-16:30	20분	· 폐회식	· '충헌 한마음'을	
올	16:10-16:30	20분	· 팔강 아나면 팔강 · 손에 손잡고		
			· 성직발표 및 시상 · 폐회 예배		
림			· 폐회 선언/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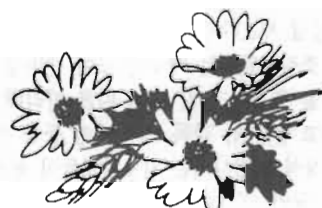
토막소식

- ◆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는 5월 22일 성가합창제 출연을 앞두고 지난 5월4일부터 오후 7시30분에 모여 댄 연습을 시작했다.
- ◆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이훈 장로)는 5월 부터 매주일 오전 9시에 기도회를 시작하여 찬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또한 찬양대 주보 '새롬' 편집진들은 영락교회 시온성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 ◆ 영아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정연희 전도사)와 유치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지난 5월5일 어린이 날에 합동으로 양재 시민의 숲에서 반별친교회를 가졌다. 휴일인 관계로 전 가족이 모였었는데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 후 담임

- 선생님 인도하에 각 반별 시간을 가진후 게임 및 놀이를 하고 마쳤다.
- ◆ 초등2부(부장 김종구 장로, 지도 정갑신 전도사)는 5월 한달을 총동원전도의 달로 정하고 각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며, 각 반 100%출석을 위해 애쓰고 있다.
- ◆ 초등4부(부장 윤광일 장로, 지도 장상기 강도사)는 5월 한달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매주일 초청전도집회를 갖기로 했다.
- ◆ 중등3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도 정연해 목사)는 지난 주일 임성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전도특강'을 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507호 예배실에서 임성한 목사의 전도특강이 있다. 한편 5월 29일(토) 오후 2시부터 '예수사랑 봄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날은 친구들과 함께 농구, 피구, 레크레이션 등의 시간을 갖고 즐겁게 놀며 서로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5월 30일(주일)에 이들을 초청하는 총동원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한다.

- ◆ 고등부(부장 최성현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는 오는 6월 13일에 '청소년 찬양 대축제'를 계획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 ◆ 대학부(부장 박용삼 장로, 지도 이병각 목사)는 지난 주에 책나눔(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천덕 지음/기독교 대학실업동역회 출판부)을 통해 정리한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주제토론을 오늘 갖는다.
- ◆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 지도 윤삼중 강도사)는 '예수사랑 청년잔치'를 통해 새로 출석하게 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양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 청년2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도 장우천 강도사)는 지난 5월 5일 북한산에서 동반대회를 5월8일은 경로회로 모여 경로잔치를 주관했다.
- ◆ 새가족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홍창민 목사)는 5월 30일 '성경 빨리 찾기 대회'를 할 예정이다.
- ◆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 목사)는 5월 9일 주일에 반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5월16일에는 5월2일 제1차에 이어 제2차 초청전도주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에바다부는 수화교육을 주일 오후3시(초급 및 중급반)부터 교육관 109호와 305호실에서 갖는다. 금번 교육은 5월 9일부터 7월 11까지 3개월간이다. 희망자는 교육관 115호 에바다부 사무실로 신청하면 된다.
- ◆ 충현경로대학(부장 김경칠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에서는 5월 15일(목) 귀순용사 고영환씨를 강사로 모시고 '북한의 현대 생활'에 대한 특강의 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오후 1-2시, 장소는 갈릴리움이다.



선교지에서 온 소식

새로 개척한 교회에 출석하며

할렐루야! 부활승리하신 주님의 은총이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남녀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충현에 속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많은 충현의 형제·자매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염려 덕분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에 무사히 도착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부족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공항까지 달려오시어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정대로 3월 26일 12시 15분 김포를 출발하여 대만,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다음날 오전 10시 45분 N.Z. Auckland에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형제·자매님들의 도움으로 주택 마련은 물론 은행거래 개설, 차량구입 및 거주신고, 제입국비자와 이삿짐 통관까지 무사히 마치고 자녀들 학교문제까지 해결하느라 이제야 소식을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해 방문때 보다 한국인 이민자 수가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차량도 늘어 다소 복잡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인 교회수도 늘어 10여개 교회중 몇몇 교회는 이민자 사회 속의 교회임을 인식하여 이민자의 정착 및 사회전반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며 전도와 성경공부 모임 등이 활발히 전개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 개척되는 등대교회에서 주일예배를 4주째 드렸으며 허락하신 장막에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목이 울창하며 울타리 없는 집들이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고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습니까? 평소 주신 말씀과 당부 하심을 명심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계 속의 충현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김형선 · 한영자

KIM HYUNG SUN
132 SUNSET ROA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TEL : 444-2682

동서남북

- ◆ 본당 로비 우측 안내석에는 수요일 저녁이나 기타 평일에 교회에 오게 될 경우, 또는 주일이라도 재산자와 함께 올 경우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과 찬송가를 자유롭게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수량이 적어지고 있다고 관리하는 분이 마음 아래워 하고 있다. 행여 본당 이외의 집회시에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각 지회의 집회실이나 사무실 등에서 본당용 두께에 관한 성경과 찬송가를 발견하게 되면 누구든지 본당 로비 우측 안내석에 가져다 놓으면 참 좋겠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붙들어 주소서
김창인 목사님 : 5월12일(수) 광림기도원 교역자 세미나 설교,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저녁집회 축도, 5월14일(금) 국가 조찬기도회 참석
신성중 목사님 : 5월10일(월) 목회자세미나 특강, 종강예배인도, 5월11일(목)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오전강의, 교회성장 영성세미나 특강 산 꼭기도원
2.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3. 제30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성령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4.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1953·교회설립 제 40주년·1993

교회설립 제40주년 기념사업 게시판

1. 미주선교 찬양대

- 매주 2회씩 연습 실시(주일 저녁 예배 후와 수요일예배 후)
- 일정 : 6월 25일 ~ 7월 6일
- 제 2차 수련회를 5월 6,7일 충현기도원에서
- 4월 4일, 각부 교회학교 부장단 및 치장단 모임 갖고 기본계획을 전달하고 기본 조직 확정.

2. 성경암송대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 각 교회학교 암송대회를 대비 해서 자체내의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등 실시

3. 제4회 충현올림픽

- 4월 4일 까지 접수된 표어를 심사하여 확정 "뛰어라, 손잡고, 새롭게" (손신애·고등부 회원)
- 4월 4일 교역자, 장로 대상의 제1차 설명회를 가진
- 심판부(부장 박승준 장로)에서는 심판규정과 경기규칙을 결정하고 심판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함
- 4월 11일 피켓 걸 심사 선발: 유정 명 자매 (제1교구, 청년 2부)
- 4월 11일 전교인 대상으로 제2차 설명회 실시
- 매주일 오후 4시전교관 305호에서 올림픽조직위원회로 모여 준비사항을 점검
- 각 연합교구들은 모임을 갖고 올림픽 출전계획과 가장행렬 계획들을 수립

4. 선교대회

- 선교대회 일정을 9월 2,3일로 잡고 기본일정표 작성, 준비작업에 들어감

5. 기독교교육 학술 심포지움

- 모든 기본계획과 섭의를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